



광주시립미술관상록전시관 전경

이우환·사갈·피카소·워홀 작품 상시 전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오는 11월 하정웅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상록전시관은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래 지역작가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됐었다.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개관 계획(안)'에 따르면 상록전시관은 오는 7월부터 두달간 전시실 확장공사에 들어간다. 하정웅미술관은 2층 규모로 조성되며 1층은 전시실(311㎡), 사무공간, 카페, 2층은 전시실(347㎡)로 꾸며진다.

또 본관에 있는 명예관장실을 이전하고 홍보관도 조성한다.

애초 별도 건물 신축을 고려했던 수장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 본관을 이용할 예정이다.

시립미술관은 정식 명칭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가칭)으로 붙여 본관과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정웅미술관은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인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의 뜻을 기리고 메세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다. 하 명예관장은 시립미술관에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작품을 기증하고 있으며 현재 기증작은 2536점이다. 그의 기증작은 시립미술관이 소장한 작품(4400점) 중 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하 명예관장은 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도 37점을 기증했다. 덕



지난 1993년 재일교포 하정웅(왼쪽) 선생이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을 처음 기증하던 모습. 하 선생은 이후 약 20년간 7차례에 걸쳐 2536점을 기증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하정웅미술관'으로 이우환 작품 37점 등 하정웅컬렉션 2536점 전시 지역작가들 전시도 예전처럼 계속 개최하기로

분에 시립미술관은 전세계적으로 이우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술관이 됐다. 또 기증작 중에는 무용수 최승희 사진, 사갈, 피카소, 앤디 워홀 작품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립미술관은 본관 5전시실 등을 이용해 하정웅 컬렉션을 전시해왔다. 하지만 주제에 맞춰 한정된 공간에서 전시

할 하다보니 이우환 작품 등 우수한 작품을 상시적으로 선보일 기회가 없었다. 이 때문에 하정웅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또 하정웅미술관은 전국에 흩어진 기증작들을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도 수행

할 방침이다. 하 명예관장은 광주 뿐 아니라 포항(1680점), 부산(530), 대전(233), 대구(46) 등 전국 시립미술관, 대학교 등에도 많은 작품을 기증했다. 지난 2012년 영암에 들어선 근린하정웅미술관은 하 명예관장이 작품 3036점을 기증하며 만들어졌다. 그가 전국에 기증한 작품은 580여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록전시관이 하정웅미술관으로 바뀌는 데 대해 "지역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립미술관측은 "하정웅 컬렉션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작가 전시도 예전처럼 계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록전시관은 3월 19일~5월1일 '백민 조규일과 가족'전, 5월28일~7월3일 '청년작가초대 신장운'전을 열 계획이고 10월 25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올해의 작가 이준석'전을 계획했다. '신장운'전까지 진행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준석'전은 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그동안 이우환 작품 등 하정웅 컬렉션이 대안하다는 소릴 듣고 찾아온 관람객이 원하는 작품을 못보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전시뿐 아니라 각종 문화·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월길' 전문인력 양성

5개 길·18개 코스 콘텐츠 제작 수강생 모집

광주의 '오월길'(5·18 Road)은 1980년 광주 민중항쟁 시적들을 바탕으로 조성된 공간 치유의 길이다. 시민영웅들을 만나는 휴먼스토리 코스인 오월 만종길, 역사를 품은 문화예술 코스인 오월 예술길을 비롯해 인권길, 의향길, 남도길 등 모두 5개 길, 18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오월길은 '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일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의 길'이기도 하다.

오월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걷기와 길을 통한 문화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전남대학교문화전대학원이 올해 처음으로 '오월길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트힐라피스트(Art HealRapist)와 마이워커(Maywalker) 양성 두 파트로 나눠 각각 15명씩 모집한다.

아트힐라피스트(Art HealRapist) 양성 과정은 예술을 활용해 치유의 콘텐츠를 기획·제작·운영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월길 위에서 다양한 예술 작업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람과 공간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마이워커 양성 과정은 아트힐라피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기획하고 길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를 네트워킹하는 오월길의 매개자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다.

공통 강의로 한국의 길, 걷기의 의미, 공적여행, 오월길 등이 마련돼 있으며 파트별로 특화 강의와 그룹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 오월길 페스티벌 등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강사로는 서명숙 제주올레길 이사장을 비롯해 이우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신(공적여행 전문가), 주홍(화가·미술치유 전문가), 권상구(시간과 공간 연구소 이사) 등이 참여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강의는 오는 3월12일부터 6월4일까지 13주간 매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블로그 blog.naver.com/mayroadacademy, 문의 070-4239-50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대희 시인, 산문집 '탐진강 추억 한 사발 삼천 원' 펴내

장흥의 탐진강변에서 태어나 지금도 감마에 살고 있는 이대희 시인이 산문집 '탐진강 추억 한 사발 삼천 원'(문학동네)을 펴냈다.

산문집에는 탐진강의 자연과 인간의 희로애락 역사가 담겨 있다. 저자는 강과 벗하며 사는 일상의 모습을 잔잔하게 풀어낸다.

입담이 좋은 마량아집, 꼬리꼬리의 친구 백련사 보살 등 친근한 이웃에서부터 영랑 김윤식, 다산 정약용, 존재 위백구 등 문인들의 이야기까지 풍성하다. 한마디로 책은 시인 특유의 해학과 직관으로 풀어낸 한 권의 이야기책이자 인문서다.

특히 시인은 상대적 빈곤으로 불행한 오늘의 사람살이를 걱정한다. 어떤 이는 남아돌고, 어떤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와 산문집 '그리운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온다' 등을 펴냈다. 육사시문학상, 애지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훈 이제홍 교수 시집 '세월과 사랑-8015' 발간

조선훈 무역학과 이제홍 교수가 신작 시집 '세월과 사랑-8015'(청람)를 펴냈다.

진도 출신 이 교수는 이번 시집에서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삶과 사유를 담아낸다. 120여 편에 이르는 작품들은 지나온 삶의 편린이 '세월'과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투영돼 있다.

특이한 점은 '알바다에서 Key West'라고 명명된 부제다. '알바다'는 저자의 고향 진도 알바다를 뜻하며, 'Key West'는 작가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집필한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이다. 시집에는 세월호의 아픔이 묻혀 있는 고향 팽목항부터 작년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하며 방문했던 헤밍웨이의 집필지에 이르기까지, 시적 편력이 펼쳐져 있다. 한편 이 시인은 2008년 '해동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아이들 웃음소리 사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



조성진 쇼팽 콩쿠르 연주 실황음반 발매 전 2만장 매진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폴란드 국제 쇼팽 콩쿠르 연주를 담은 새로운 실황음반(사진)이 발매도 전에 선주문만으로 초도발행 2만장을 소진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인 도이체 그라모폰(DG)에서 발매한 '2015 쇼팽 콩쿠르 우승 앨범'과는 곡 구성부터 다른 또 하나의 실황음반이다.

이번 음반에는 본선 1차부터 3차까지 조성진이 각 단계에서 했던 대표적 연주들이 골고루 담겼다. 쇼팽 에튀드 op.10-1와 op.10-10, 환상곡, 발라드와 왈츠, 네 곡의 마주르카, 쇼팽 협주곡 1번이다. 앞서 발매된 도이체 그라모폰 실황



음반에는 예선과 본선 1차에서 연주한 '녹턴 op.48-1', 2차에서 연주한 '소나타 op.35'와 '폴로네이즈 op.53', 3차에서 친 '24개의 프렐류드 op.28' 등 4개 작품이 담겼다. 도이체 그라모폰 실황음반은 이날 현재 9만장이 넘게 팔려나가 10만장 판매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